

섬유기업 지원으로 성장기반 다져

전북자치도, 섬유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6개 분야 20억 투자... 4월부터 참여기업 모집

전북자치도가 도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섬유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패션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 6개 분야에 19억원 상당을 편성해 섬유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출 감소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쳐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도내 섬유기업은 481개사로 주로 속옷, 잠옷, 양말제조, 직물직조 및 원단 제조업 등의 업종이 포진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전북 섬유패션기업 디지털 역량강화사업(5,000만원) △전북 섬유 마케팅 지원사업(1억 2,000만원) △니트·한지 섬유패션 디자인 경진대회(8,000만원) △스마트 의류제조 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6억원) △안전보호용복합 섬유 기술개발 역량강화 사업(8,000만원) △활성탄소 섬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10억 4,94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북 섬유 패션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은 생산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개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5개사의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 섬유 마케팅 지원사업'은 15개사 섬유기업을 모집해 패션제품 홍보, 시장 확대, 국내외 마케팅, 신규바이어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대 섬유패션 박람회인 '프리뷰 인 서울'(서울 코엑스, 8월 21~23일)에 참여해 전북 섬유홍보관에서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갖는다.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특화 섬유소재인 니트·한지섬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K-패션에 접목시키기 위해 4월 중 공고해 10월에 패션쇼 및 시상식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우수작품은 기업과 연계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상품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경진대회 수상작(51점, 상위 15, 특선 20, 입선 16) 일부는 5개 기업으로부터 수상작 디자인 활용

상품화를 지원받았다.

스마트의류제조공장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봉제공장 DB업체 규모, 설비, 가동능력 등을 구축하고, 브랜드 제품 수요를 도내 기업에 매칭하는 등 오더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봉제공장 40개사에 DB구축 및 고도화를 완료했으며, 도내 봉제공장 3개사에서 4건의 브랜드 오더(블랙야크, K2, 잔카)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보호용복합 섬유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연구원 보유 인프라이를 활용해 기술 역량이 부족한 섬유기업 2개사에 안전보호 용복합 섬유 분야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장갑 2종(항균성 99.9%, 컷레벨 C등급 이상)을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3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 준공된 '안전보호용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는 방직 성능, 화염·열저항 평가시스템 등 7종의 안전보호용복합 섬유 관련 성능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보호 제품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업 인차

화를 위해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활성탄소섬유기술지원기반구축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에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을 위한 장비 32종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연구원은 장비를 통해 섬유기업이 활성탄 섬유의 소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 확보,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시험분석 52건, 기술지도 44건, 시제품 제작 24건을 지원했다.

지원사업들은 4월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ECO융합 섬유 연구원 누리집(www.kictex.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장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등 트랜즈변화에 섬유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섬유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섬유산업이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은 도내 농수산물 우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한 수원 메가쇼 시즌1 행사에 참가하여 2024년수도권 판로 개척의 포문을 열었다

수원 메가쇼 판매 2억300만원 성과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수산물기업 수도권 판로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해양수산청업투자지원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속적인 고품가, 고급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수산물 우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한 수원 '메가쇼 시즌1' 행사에 참가하여 2024년수도권 판로 개척의 포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14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가쇼에서는 도내 농수산물 기업 30개사와 함께 전북공공관을 운영하여 간편식, 곱창, 꽃게장, 닭발, 전골, 주 등 제품군을 선보이며, 현장 판매 실적 약2억3백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추가 납품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인만큼 박람회 기본 컨셉을 벗어난진 주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컨셉으로 참가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요즘 유행에 맞춘 나만의 삼시세끼 테마로 '혼술거리' 등 차별화된 전복관을 운영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했다.

한편, 이번 행사시작 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눈길을 끌만한 이벤트 등을 추가한 것이 도내 농수산물 기업들의 경쟁력 증대를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김욱기 기자

농진청, 올해 돌발해충 부화 "평년보다 2~3일 빨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해충 발육 모형과 기상청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과수와 조경수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3종의 발생권역별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 기온은 4도로 평년(23도)보다 1.7도 높았고, 월동난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 무렵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이 기온에 따른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3

종의 부화 시기가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부화 시기를 보면 경기·충남·경북 등 대부분 지역은 5월 16~28일경, 그 외 전남·경남 남해안 지역은 이른 5월 초에서 중순에 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8~9일 늦고 평년보다는 2~3일 빠르다.

방제용 약제는 꽃매미 66품목, 갈색날개매미충 61품목, 미국선녀벌레 79품목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 발생 시기를 고려해 대상 작물과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약제를 사용하면 된다.

등록 약제와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

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서 볼 수 있다.

지난해 돌발해충 3종 발생 지역과 면적 등은 줄어들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발생 밀도가 증가해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지역별로 정밀한 부화 시기를 예측해 현장을 예찰하고 제때 방제해야 한다.

꽃매미는 포도나무를 포함한 11종 이상의 과수에 피해를 준다. 갈색날개매미충은 산수유, 감 사과, 대추에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매실, 콩, 인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기후변화로 돌발해충 발생이 예년보다 증가하는 추세고 기후사물도 다



농촌진흥청은 꽃매미 등 돌발해충 3종의 발생권역별 월동난 부화 시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꽃매미부화약충.

양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때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 완주군 배 농가 현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5일 과수 생육 상황 및 저온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완주군 배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배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올해 안정적인 배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 3월부터 갈송제 등 생육촉진제 18만 개를 농가에 무상 지원하였으며 농협케어 키, 농우바이오 등 농협 농자재 계열 사에서도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영양제를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있다.

과실수급안정사업(계약출하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저온피해 경감을 위한 영양제를 35% 할인하여 사과, 배 과원 약



전북농협은 15일 과수 생육 상황 및 저온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완주군 배 농가를 방문했다.

8,000ha에 살포 가능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지난해 사과·배 등 과수 생산량 감소로 수급불안과 가격 강세가 이루어 졌다"며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사과·배의 생육관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참두릅 선별 및 출하현장 점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최근 구립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봄철 신선식품 작물로 각광받는 참두릅 선별 및 출하현장을 점검했다.

순창 참두릅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일조량이 크고 일조량이 많아 최적의

재배조건으로 꼽히는 순창에서 재배하여 식감이 뛰어난 등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봄나물 중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봄철 약해지기 쉬운 체력과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병희 지부장은 "순창 참두릅이 전국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협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